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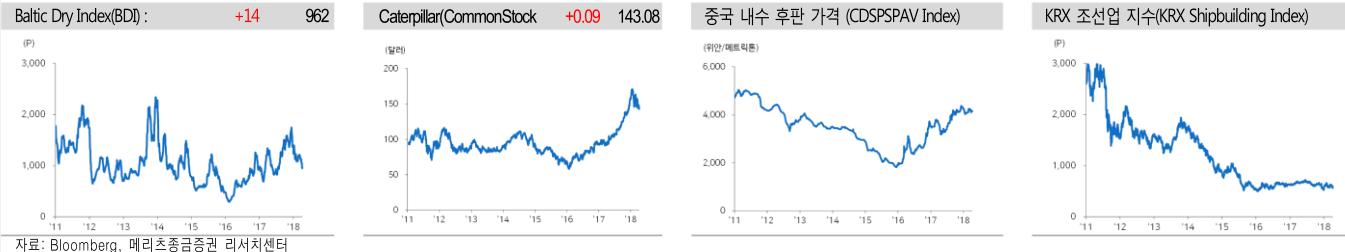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749.4	18.5	126,500	-1.2	-11.2	3.5	31.8	88.2	42.3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579.8	21.4	404,000	-3.1	-9.2	-11.2	6.0	5.4	4.5	0.7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774.6	6.7	75,900	-1.6	-11.4	-38.5	-33.4	7.2	6.3	0.6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580.2	8.1	160,000	-3.6	-14.0	-22.3	-5.3	10.2	7.5	1.1	1.0	11.7	13.9
삼성중공업	3,649.8	16.1	8,220	4.8	0.7	4.3	27.1	51.8	25.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16.0	4.2	27,200	-2.5	0.6	71.1	95.7	9.8	11.1	0.9	0.8	9.2	7.3
현대미포조선	1,878.0	11.2	93,900	-1.1	-12.2	-7.0	19.3	20.3	14.6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33.5	6.7	3,145	2.4	-6.5	-13.0	-5.0	63.3	15.8	0.5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042.7	28.7	77,200	-3.9	-1.8	39.1	41.9	13.6	13.3	1.9	1.7	14.6	13.3
두산밥캣	3,112.7	27.0	31,050	-0.6	-2.2	-12.2	-13.3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1,432.3	25.7	16,850	0.9	5.0	-10.8	-10.1	21.7	14.8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26.7	48.1	24,000	0.2	-1.4	-9.3	6.7	10.9	9.9	0.9	0.9	8.8	9.0
성광밴드	328.9	16.6	11,500	-0.4	-5.0	0.9	152	1,016.6	41.2	0.7	0.7	0.1	1.8
태광	320.7	14.9	12,100	2.5	-18.0	-9.0	0.4	72.3	35.3	0.8	0.7	1.0	2.1
두산중공업	1,581.0	10.4	14,850	-0.7	-1.3	-13.7	-3.3	12.7	9.5	0.5	0.5	4.1	5.1
두산인프라코어	1,788.0	12.7	8,590	-0.9	-4.1	-19.3	-1.2	7.6	6.8	0.9	0.8	12.3	12.7
두산엔진	376.0	3.3	5,410	-2.9	18.5	27.9	46.8	-177.6	54.6	0.7	0.7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659.3	16.8	47,800	-1.6	-0.9	-0.7	0.7	34.2	23.9	3.6	3.3	10.6	13.7
한화테크윈	1,454.4	12.8	27,650	0.2	-2.3	-20.8	-22.2	22.5	14.6	0.6	0.6	2.8	4.1
LIG넥스원	1,009.8	11.1	45,900	-1.7	1.8	-15.0	-23.2	19.0	13.2	1.6	1.4	8.4	11.3
태웅	351.1	3.8	17,550	-1.4	-13.5	-18.8	-9.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2.4	5.3	6,760	-6.5	-23.0	7.3	33.9	-281.7	40.0	2.0	1.9	-0.7	5.0
한국카본	245.7	15.4	5,590	-1.1	-24.3	-11.0	4.3	46.4	25.0	0.8	0.7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TX조선 결국 법정관리, 화생절차 개시

정부와 산업은행 주도로 한 달의 준비기간을 받았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로 향했다고 알려짐. STX조선해양은 작년 7월 법정관리를 출입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로 들어감.

9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자구계획안과 노사협약서 제출 마감을 오후 5시에서 자정으로 미루며, 노사 합의를 종용함. STX조선 생산직 695명 가운데, 75%인 500여명이 회사를 떠나야만 자구계획이 성사될 수 있던 상황임.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안 합의 실패에 따라 RG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힘. 정부와 채권단은 원칙을 고수, 반면 노조는 강경한 상황임.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 청산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국민일보)

## 강한구 현대重 사장 "일감절벽에 유휴인력 3,000여명, 추가감축 절실"

현대중공업 강한구 사장은 9일 담화문에서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감안하면 연간 70~80척을 건조해야 하는 반면, 16년 24척, 17년 48척으로 일감부족에 시달린다고 알려짐. 올해 1분기 실적도 평년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일감부족이 불투명해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짐. (서울경제)

## 삼성重, 유상증자 발행가 5870원 확정…1조4088억 조달

삼성중공업은 9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주당 5,870원에 최종 확정함. 주관 및 인수 증권사와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해 증자대금 1조 4,088억원을 사실상 확보함. 삼성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는 전량 청약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12~13일 구주주 청약 후 신주 상장은 5월 4일로 예정됨. (뉴스1)

## 삼성重, 1조6천억 호주 바로사 프로젝트 참여 '초읽기'

미국 ConocoPhillips의 Barossa FPSO 프로젝트에서 FEED에 대한 업체 선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임.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Technip이 FEED 업체로 선정해, 곧 계약서명을 할 거라고 알려짐. 최근 Barossa 프로젝트는 호주 당국에 승인을 받았고, 총 15억달러 규모로 알려짐. (EBN)

## Seadrill refinancing gets the vote

시추업체 Seadrill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조정계획을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했다고 알려짐. 530명 채권자 중 529명이 동의했고, 주주들도 86%가 구조조정에 찬성함. Seadrill은 10.8억달러의 자금을 공급받아 모든 담보 채권의 만기를 5년 연기하는데 성공했고, 확정심의는 4월 17일로 예정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